ELIO’S LITTLE DISCOVERIES

The Birthday Question

생일 질문 · 엄마가 말한 세 가지 찾기



10세 · Day 072 · 함께 읽기 · 4장면



When Mum came in with the washing, Bori asked, “What is the best kind of morning?” Mum laughed. “A slow one. I wake up by myself, nobody needs anything, and I sit by the window with my book.”



That evening, Elio sat on the floor by the armchair. “My song would wake her up,” he said quietly. “And a big breakfast means a big mess. My plan is the opposite of a slow morning.”



“She did not ask for a present,” said Bori. “She told us about a morning. Maybe the morning can be the present.” Elio sat up. “And it can still be a secret. She will not know until she walks in.”



Early the next day, Bori crept in by the back door. Elio swept on tiptoe and set out three plates. Together they slid the armchair over to the sunny window and put Mum’s book on its arm.

함께 발견해요

읽기 전

표지의 부엌과 창가 의자를 함께 보고, 깜짝 선물을 받아 본 기억이나 준비해 본 기억을 하나씩 이야기해 봐요.

함께 읽을 때

엘리오와 보리가 각자의 생각을 말하는 장면에서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를 짚어 봐요. 보리가 선물이 아니라 아침에 대해 묻는 장면에서 잠깐 멈춰도 좋아요.

생각 나누기

엄마가 말한 '두 가지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각각 누구의 생각에서 나왔는지 원문에서 찾아봐요.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정하지 않아요.

생활에서

가족이 좋아하는 '느린 아침'이나 쉬는 시간이 어떤 모습인지 물어봐요. 무엇을 준비하라는 약속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 가는 이야기로 나눠요.

오늘의 그림과 이야기를 함께 즐기는 과정이에요. 혼자 읽기나 말하기를 시험하지 않아요.

ELIO original story · 제1판
교육자·보호자·아이의 사용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